

절도범 DNA 분석에 18일... 시민 피해 키웠다

국과수 결과 나올때까지 5건 추가 절도

경찰 신속 요청 안해 범인 검거 지연 원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확보해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설 때까지 절도범은 무려 19건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과 이에 따른 경찰의 범인 검거 지연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은 늦은 밤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이모(53)씨의 식당에 침입, 현금 44만원을 훔쳐가는 등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광주·목포·영암 등의 상가와 식당을 돌며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광주시 서구 상촌동 범행 현장에서 김씨가 남겨놓은 치솔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꼬박 18일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광주시 동북구 등을 돌며 5건의 추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이 DNA 분석 결과를

확보한 뒤 신원을 확인, 지난 18일 광주 한 PC방에서 불잡을 때까지 김씨의 범행을 계속했다. 김씨가 경찰의 검거망을 피하면서 벌인 절도 행각만 14건에 이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시민 피해를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신속하게 이뤄져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앞당겨졌다면 범인 검거 시기도 빨라졌을 것이라는 예기다.

경찰도 국과수에 신속한 DNA 분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발생했던 나주 금은방 절도 사건의 경우 경찰의 '긴급' 분석 요청에 따라 국과수는 불과 하루 만에 DNA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국과수의 더딘 분석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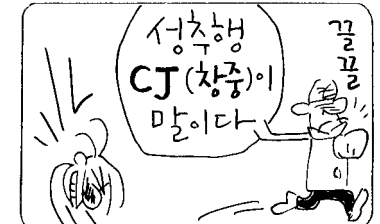
광주 '야생진드기' 감염 의심환자 퇴원

광주에서 첫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의심환자로 신고된 여성이 퇴원했다.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의심 환자인 A씨(여·61)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충북에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남·77)가 치료 중 숨지면서 의심되는 국내 환자의 수는 30명으로 늘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다원침 (8825) 김동두



탈주범 이대우 추적 빛속 야산 수색

"닭은 사람 봤다" 신고

기동대원 100명 투입

경찰이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빛 속 야산을 수색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광주 경찰은 또 이대우 행방을 찾기 위해 128개의 CCTV를 분석했고 전남 경찰도 여·터미널·여객선터미널 등 46개소 213개의 CCTV를 뒤지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광주대학교 인근 야산에서 "이대우와 닭은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기동대원 등 100여 명을 투입, 5시간 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등산 중 이대우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봤다며 27일 신고했다. 당시 검은색 옷차림에 얇은 무테안경을 썼으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일요일 오전 끝없는 차림으로 등산로 주변에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오인 신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신고를 포함해 모두 8건의 신고가 접수돼 6건이 이대우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대우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교 방문 주민증 발급

광주 북구청 주민등록발급팀이 27일 일곡동 송일고등학교를 방문해 만17세가 된 신규 대상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랍서 현금 700만원 현직검사 해임 권고

대검찰청 검찰본부

대검찰청 검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7일 검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전주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 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서랍에서 기업 명의의 봉투 여러 개에 현금 700여 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감찰 결과 A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으로 고소 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지인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A검사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봉투와 관련해 A검사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감찰 결과에서도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용삼 대검 검찰1과장은 "현금이 발견돼 감찰에 착수했지만 막상 감찰 결과 다른 부적절한 업무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면서 "감찰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직수행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해당 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장성군 공무원, 군의원에 욕설 물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최근 농기계 임대하러온 군의원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군 산하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L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장성군 장성을 성산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농약 살포기를 임대하러 온 장성군의회 L의원에 "개××야"라고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L의원은 "농약 살포기 임대료 3000원을 지급한 뒤 담당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공무원 L씨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L의원은 또 다른 직원도 "군의원, 개××야나, ××놈야, 우리가 여기서 근무하니까, 너 ×××로 보이냐"라는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L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서 기자의 전화를 끊었고, K씨는 "먼저 욕설을 해서 맞받아 친 것.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지난 24일 감사에 착수, 당사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영세어민 지원금 빼돌려 장인에 1억 대출

해경, 수협 전·현 직원 5명 조사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영세 어민에게 지원되는 부채 경감 정책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수협 전·현직 직원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협 간부인 A(45)씨는 지난 2005~10년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짜고 불법 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장인이 영세 어민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적발된 5명 가운데 직원 2명은 퇴직했으며 3명은 재직 중이다.

해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부채 경감을 돕기 위해 연 3%대의 저리로 융자하는 이 자급의 불법 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군산 갯벌 비브리오팀균 검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여름철 감염되면 사망 위험이 큰 비브리오팀균이 도내에서 첫 검출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연구원은 군산시(6곳), 부안군(6곳), 고창군(3곳)에서 비브리오팀균 유병에속조사를 한 결과 군산시 구암동 하구 갯벌에서 을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팀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비브리오팀균은 해수 온도가 섭씨 21도 이상 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호염성세균으로 갯벌과 어패류(해수·조개류·낙지·게 등)에서 주로 검출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찜질방 남성 더듬은 변태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더듬던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33)씨는 26일 오전 8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찜질방 남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홍모(22)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더듬었다는 것.

○강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깬 홍씨에게 붙잡힌 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고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증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증적으로 치료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실구미,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약액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종-4738호